

美·日 금리차에 엔화 약세 지속… 원화 하락압력 확산 우려

엔화, 40년만에 최저수준 이어가
엔 캐리 거래, 정책환경 등 영향
원화 가치 독자적 반등 쉽지 않아

엔화가 40년 만의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임금 인상이 3년 연속 5%를 넘고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1%까지 올렸지만 미·일 금리차와 엔 캐리 거래, 추가 인상을 제약하는 정책 환경이 엔화 반등을 가로막으면서 원화에도 하락 압력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엔화는 이날 오전 달러당 161.57엔 안팎에서 거래됐다. 지난주 기록한 1986년 이후 최저치인 162.84엔에서는 소폭 반등했지만, 달러지수가 2주만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온 점을 고려하면 엔화의 회복력은 제한적이었다. 원·달러 환율도 24시간 현물환 거래 첫날인 이날 오전 1530원대에서 움직였다.

엔화 약세는 일본 경제의 임금·물가 정상화 흐름과 대조된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인 렌고가 집계한 올해 평균 임금 인상은 5.01%로 2024년 5.10%, 지난해 5.25%에 이어 3년 연속 5%를 웃돌았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시스

최근 실질임금이 플러스로 돌아선 데다 일본은행 단칸조사에서 대기업 제조업체감경기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은행도 지난달 16일 정책금리를 0.75%에서 1%로 올렸다. 31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기초적인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접근하고 있는 만큼 경제·물가와 금융 여건에 따라 추가 인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추가 인상 속도에 의구심

1%라는 금리는 일본 국내에서는 높지만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여전히 낮

다. 미국 기준금리보다 2.5%포인트(p) 이상 낮아 엔화를 빌려 고금리 달러 자산 등에 투자하는 엔 캐리 거래의 유인이 남아 있다. 현재 금리 수준보다 일본은행이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미국과의 금리차를 좁힐 것인지가 엔화 방향을 좌우하는 셈이다.

일본은행은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도 금리를 올린 뒤에도 금융 여건이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경기와 물가 흐름을 살펴 점진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신호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이어지고 있

다. 메이지야스다종합연구소는 임금 상승이 소비를 뒷받침하고 일본은행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근거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의 정책 기조도 변수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일본은행에 성장 중심 정책과 보조를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의 완화적 정책 선호와 일본은행 내 비둘기파 인사 확대가 향후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엔화 약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도 엔화의 방향을 돌려놓지 못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엔화 방어에 총 11조7349억엔을 투입했다. 개입 직후 엔화 가치가 반등했지만 금리차와 정책 기대가 달라지지 않자 다시 4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밀렸다.

◆ 원화, 24시간 거래도 첫 시험대

엔화의 부진은 원화의 독자적인 반등도 제약할 수 있다.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관련 부서는 원화와 엔화의 동조성이 양국의 저성장 국면과 미국과의 금리차, 대미 투자 기대, 높은 수출 경합도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

석했다.

정부도 최근 원화 가치가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과 상당히 괴리됐다고 평가하고 일본·미국 등 주요국과 외환시장 정보를 긴밀히 교환하고 있다. 엔화가 다시 급락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화까지 같은 아시아 수출국 통화로 묶어 매도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날 오전 6시 원·달러 현물환 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되면서 해외 시간대에 발생한 엔화 급락과 일본 당국의 개입도 원화 가격에 시차 없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시장 접근성과 가격 발견 기능은 개선되지만 거래량이 적은 야간 대에는 엔화 급락과 같은 외부 충격이 원화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한은 관련 부서는 금융위 회의에서 원화와 엔화의 동조성이 “엔화 약세 시에는 강하게 나타나고 엔화 강세 시에는 약해지는 등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엔화가 40년 만의 약세권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원화 역시 수출과 무역수지 등 국내 기초여건만으로 빠르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삼성, 메타 AI칩 생산협력 검토… 파운드리 사업 분수령

계약규모 약 65억달러 수준 거론
2나노 공정 수율·안정적 양산 관건

메타가 삼성전자와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생산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계약 규모보다 2나노(나노미터·10억분의 1m)공정의 수율과 안정적인 양산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삼성 파운드리 실적 반등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차세대 AI 가속기 ‘MTIA’ 3세대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협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규모는 약 65억달러(약 10조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공식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MTIA 1·2세대는 TSMC에서 생산됐지만, 3세대부터는 삼성전자 2나노 공정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 가능성을 단순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대형 수주 이상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메타가 삼성전자의 첫 대형 AI ASIC(주문형 반도체) 고객이 될 경우 첨단 공정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생산 이력과 고객 신뢰도가 신규 수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자체 AI 칩을 추진하는 빅테크 고객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메타와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경쟁력으로는 ‘턴키’ 역량이 꼽힌다. 업계에서는 시스템 LSI 사업부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고 파운드리에서 생산까지 수행하는 일괄 체계를 구축할 경우 고객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공정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향후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패키징까지 연계될 경우 삼성전자의 수직계열화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도 따른다.

실제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최근 AI 반도체 고객 저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A16 생산을 맡은 데 이어 AI 반도체 기업 그록(Groq)의 AI 추론 칩 생산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타뿐 아니라 엔트로픽의 자체 AI 칩과 구글 차세대 TPU 생산 협력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첨단 공정 고객 기반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결국 2나노 공정의 양산 경쟁력이 이번 협력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AI 가속기는 일반 모바일 칩보

다면적이 커 웨이퍼당 생산 가능한 칩 수가 적고 미세한 결함에도 영향을 받기 쉽다. 이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조원가가 높아지고 고객의 양산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내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생산거점을 확보할 경우 현지 빅테크 고객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2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차세대 AI 반도체와 DTCO(설계·공정 동시 최적화) 기술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메타 수주 여부도 중요하지만 결국 승부를 가르는 것은 2나노 수율과 안정적인 양산 능력”이라며 “메타를 시작으로 엔트로픽, 구글 등 후속 AI 고객을 확보해야 삼성전자 파운드리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 1면 ‘가짜뉴스 꼼짝마…’서 계속

‘사이버레커’ 집중 규제

다만 AI가 모든 허위정보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풍자와 패러디, 사회적 맥락이 중요한 표현은 AI가 잘 못 판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인 만큼 플랫폼의 AI 기술과 자율 운영 역량이 이용자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생성형 AI 확산 이후 허위정보의 생산 속도가 사람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AI 기반 탐지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다만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정보까지 기계가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는 만큼 AI와 사람의 검토를 결합한 운영 체계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의 취지는 일반 이용자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산·유통해 광고나 후원 등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른바 ‘사이버레커’를 겨냥한 것이 핵심이다.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해 수익을 얻은 경우가 주요 대상이며,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 평균 조회 수 10만회 이상이라는 일정 규모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SNS에 올린 글도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비판, 사실관계 착오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 플랫폼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한정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외환시장 24시간 가동, 원화 글로벌 도약 출발점”

구윤철 부총리, 하나은행 딜링룸 방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서울외환시장 24시간 가동’과 관련해, 이는 원화의 세계무대 도약과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6일 오전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을 찾았다. 그는 24시간 가동이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과 국내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눈



구윤철 부총리

은 수요 등을 반영한 개혁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비롯해 건조한 대외건전성,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등을 언급했다.

또 이는 단순히 거래시간을 확장하는 조치를 넘어, 외환 거래에 있어 선진시장 수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기 위한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그는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궁

극적으로는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수출입기업의 실시간 환리스크 대응, 국내 금융기관·중개사의 영업 확대 등 시장 참여자에게 새로운 편익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장했던 외환시장은 2016년부터 폐장 시간이 오후 3시30분까지로 연장됐다. 이후 2024년 7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로 거래시간이 확대된 뒤 이날부터 24시간 거래 체제가 시작됐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투자자 및 수출입업체 등의 외환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은행·증권사, 중개회사, 수출입기업 등 모든 시장 참여자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그간의 내부규정·업무관행 정비, 인력보강 및 사법거래 등을 언급했다.

이어 외환시장 안정과 제도 안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향후에는 결제(자금이체)도 24시간 가능하게 하는 역외원화결제시스템(2027년 1월 본운영 계획) 등 여타의 외환시장 개혁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